

기아 (000270)

2025.11.25

인도와 유럽이 힘을 내준다면 그 다음은 PBV

[자동차/로보틱스] 이상수
2122-9197 sang.su@imfnsec.com

기아 2026년 매출액 119.6조원, 영업이익 9.7조원 전망

기아는 1973년 소하리 공장 완공 이후 완성차 조립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다. 1998년 현대차그룹 편입 후 미국, 유럽, 신흥 시장으로 생산, 판매 거점을 확대했다. 높은 SUV 비중이 또한 특징이다 (2024년 미국 판매량 대비 76.4%).

당사는 기아 2026년 매출액 119.6조원 (+4.0%YoY) 영업이익 9.7조원 (12.6% YoY)을 전망하며 근거는 아래와 같다. 매출액의 경우 (1) 텔룰라이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2) 인도 GST 인하 효과가 일찍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영업이익의 경우 (1) 자동차 관세 15% 확정에 따른 연간 관세 부담액 축소, (2) 크레딧 정책에 따른 관세 환입 가능성 등에 근거한다.

투자포인트 (1): 이미 훌륭한 SUV, 하이브리드 믹스에 텔룰라이드까지

2024년 기준 기아 미국 판매 SUV 비중은 이미 75%에 달하고,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차량 전부가 SUV로 구성된다. 텔룰라이드는 2세대 출시를 앞두고도 올해 준수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전략 차종이다. 2026년부터 2세대 텔룰라이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고, 이에 따른 추가 믹스 개선이 기대된다.

투자포인트 (2): 결국 BEV가 중요한 유럽을 EV 풀라인업으로 공략

2024년 기준 유럽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HEV 18.2%, MHEV 36.8%, BEV 30.7%, PHV 14.3% 등으로 구성된다. MHEV는 기아 하이브리드 전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국 BEV 중심 유럽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유럽 BEV 시장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아는 EV2, EV4 등 볼륨 모델 중심의 2026년 유럽 신차 사이클로 이를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포인트 (3): GST 인하 효과가 벌써부터 관찰되고 있는 중

2025년 10월 누적 기아 인도 판매량은 23.7만대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올해 9월부터 GST가 인하되었고, 조금씩 그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기아는 올해 카렌스 클라비스를 출시하며 SUV 믹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었고, 2026년에는 시로스 EV 등 볼륨 모델 전기차 출시를 통해 외형 확대 기초를 이어갈 것이다.

투자포인트 (4): 기아의 색깔을 PBV로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기아는 올해 9월부터 PBV 판매를 시작했고, 2030년 기준 글로벌 판매량 중 5.9%인 25만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 PBV의 특징은 모듈 공용화를 통해 여러 차종 제공이 가능한 Flexible Body System이다. 가변식 플랫폼의 장점은 고정비 절감, 높은 대당 이익 등이고, 이는 봉고부터 축적해온 동사의 경쟁력이다. 향후 PV5를 시작으로 이는 단순 상용을 넘어 다목적 차량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목표주가 15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추가 상승 여력 35.0%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50,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35.0%이다. 2026년 EPS 20,164원, 글로벌 Peer 완성차 업체 12M Fwd P/E에 10%에 할증을 부여한 P/E 7.5배를 Target Multiple로 설정했다. 이는 1) 하이브리드 신차 출시 및 기술 경쟁력에 따른 북미 M/S 증가, 2) 스마트카 자체 개발 가능성 남아있는 유일한 레거시 완성차 OEM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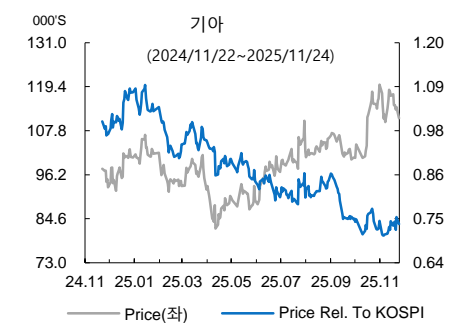
Buy (Initiate)

목표주가(12M)	150,000원(신규)
증가(2025.11.24)	111,100원
상승여력	35.0 %

Stock Indicator	
자본금	2,139십억원
발행주식수	39,379만주
시가총액	43,750십억원
외국인지분율	39.7%
52주 주가	82,000~119,900원
60일평균거래량	990,311주
60일평균거래대금	108.9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3	6.0	27.6	13.6
상대수익률	-0.9	-15.4	-20.8	-40.2

Price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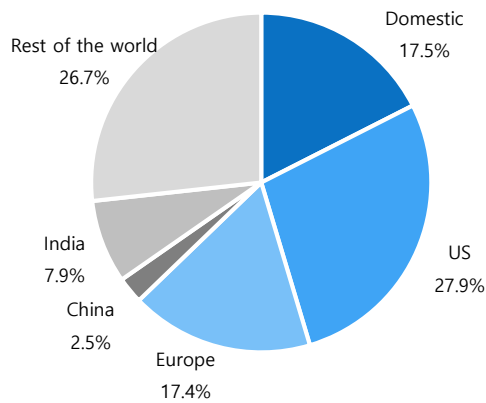
FY	2024	2025E	2026E	2027E
매출액(십억원)	107,449	115,000	119,613	125,658
영업이익(십억원)	12,667	8,683	9,776	10,594
순이익(십억원)	9,773	7,333	8,019	8,626
EPS(원)	24,413	18,440	20,164	21,691
BPS(원)	140,395	157,520	176,369	196,745
PER(배)	4.1	6.4	5.8	5.4
PBR(배)	0.7	0.7	0.7	0.6
ROE(%)	19.1	12.4	12.1	11.6
배당수익률(%)	6.5	5.5	5.5	5.5
EV/EBITDA(배)	1.4	2.3	1.8	1.5

주: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SUV와 상용차량으로 몸집을 키워온 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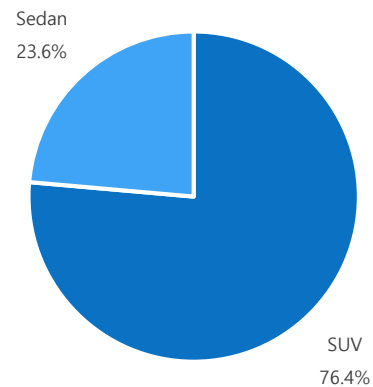
기아는 SUV와 상용차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며 국내 2위 완성차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1998년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각지로 생산 및 판매 거점을 확대했다. 2024년 기준 기아의 도매 판매 지역별 비중은 한국 17.5% 미국: 27.9%, 유럽 17.4%, 인도 7.9%, 중국 2.5%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기아 미국 판매 차량 중 76.4%가 SUV로 구성되며, 특히 BEV 및 HEV 등 친환경 차량 포트폴리오가 거의 모두 SUV로 구성된다.

그림1. 2024년 기준 기아 도매 판매 지역 비중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2024년 기준 기아 미국 판매 SUV 믹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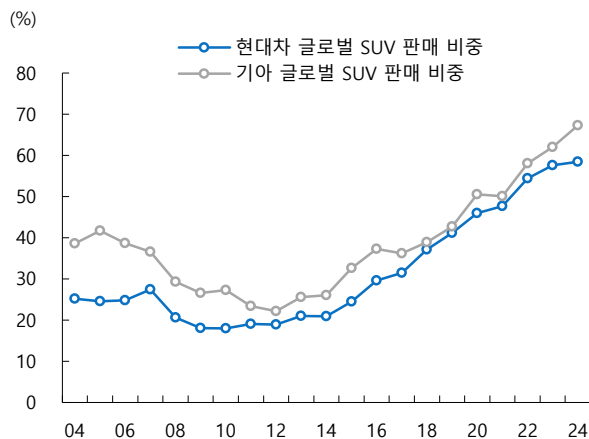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기아라는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SUV, 높은 수익성의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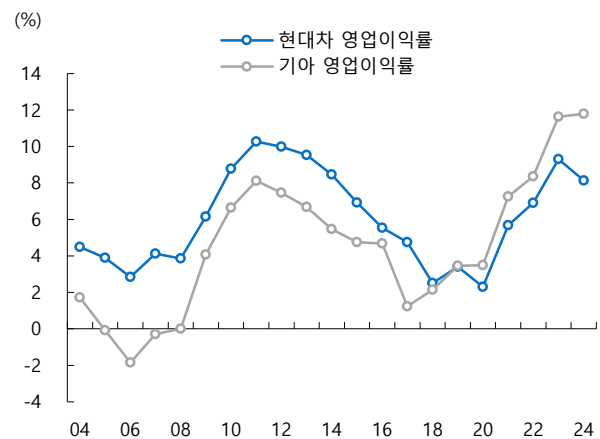
기아라는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역시 SUV이다. 미국 관세 영향을 제외하면 동사 영업이익률은 현대차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기아의 높은 SUV 판매 비중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아의 SUV 판매 비중은 항상 현대차보다 높았으나, 영업이익률 역전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시장 M/S 확대에 따른 영향도 존재하고 (높은 MSRP), 2010년대부터 그룹 단위에서의 기아 성장 전략이 변화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대 초반 20~30개에 달하던 플랫폼 수를 2024년 현재 7~8개 수준으로 통합했는데, SUV와 세단 또한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기도 한다. 물론 동일 플랫폼을 활용하더라도 서스펜션 구조를 위한 재료비 등 일부 변동비가 추가 발생하겠지만, SUV MSRP가 세단 대비 20~30% 정도 높다는 수익성 증대효과에 비하면 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림3. 기아, 현대차 글로벌 SUV 판매 비중 추이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기아, 현대차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DART,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현대차그룹의 차량 플랫폼은 통폐합을 거침. 세단과 SUV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SUV에 수반되는 재료비는 사실상 크지 않아 믹스에 따른 수익성 효과가 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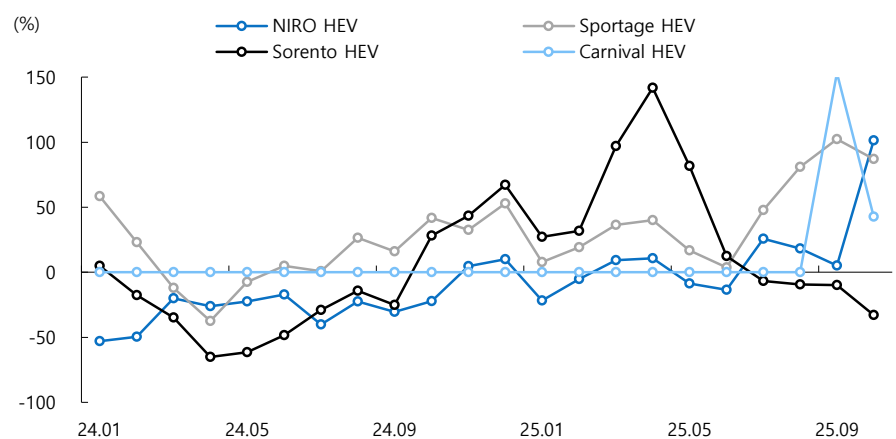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1): 훌륭한 SUV, 하이브리드 믹스에 텔룰라이드까지

투자포인트 (1)-1: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증가 중이나, 편중 현상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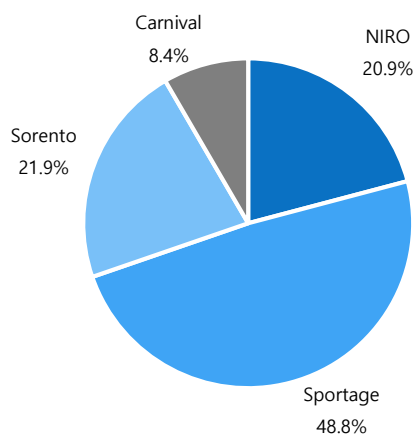
첫 번째 투자포인트는 이미 훌륭한 미국 SUV 및 하이브리드 믹스에 2세대 텔룰라이드가 힘을 더 보탬 것이라는 점이다. 2024년 기준 기아 미국 판매량 중 SUV 비중은 75.4% 수준이고, 하이브리드 차종은 10.8%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기아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차량은 전부 SUV 이상 차종으로 구성된다. 2025년 10월 누적 기준 기아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1.2만대 (+28.9% YoY)를 기록했다. 현재 기아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차량은 니로,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등으로 구성되고, 판매량의 약 50%를 소렌토가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5월 들어 소렌토 HEV의 성장성이 조금씩 주춤하고 있다. 전년 동기 워낙 높은 판매대수를 보여준 영향도 있겠으나, 분명 경쟁 차종 판매 확대에 따른 점유율 감소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 기아 미국 주요 하이브리드 차량별 판매대수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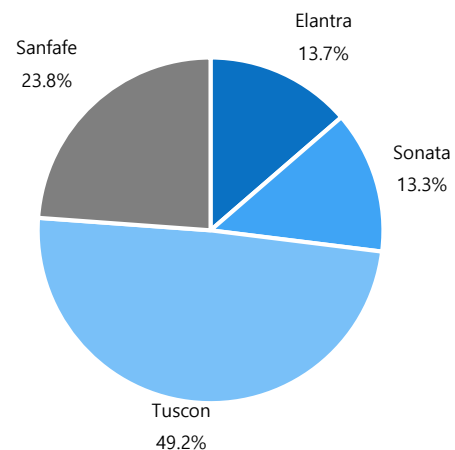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2024년 기준 기아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차종 구성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8. 2024년 기준 현대차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차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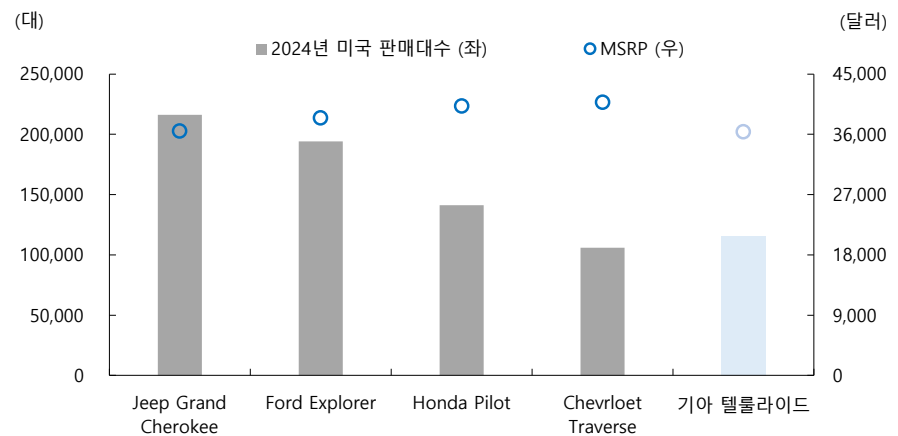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1)-2: 미국 미드쉽 사이즈 SUV 시장 공략이 가능한 텔물라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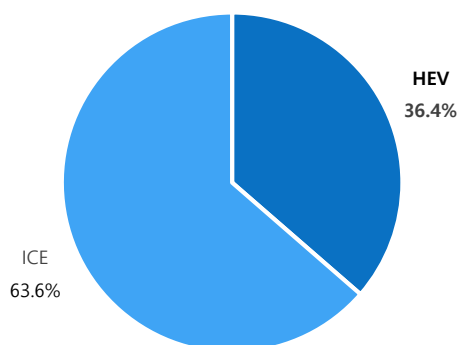
쏘렌토는 2000년대 초반 기아의 사업 구도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킨 구원 투수였음은 분명하나, 미국 미드 사이즈 SUV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내부 공간 등과 같은 차량 제원에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미국 미드사이즈 SUV 시장은 Ford Explorer, JEEP Grand Cherokee, Honda Pilot, Toyota Highlander 등으로 구성되고, 기아의 텔물라이드와 현대차의 펠리세이드가 이에 포함된다. 2024년 기준 미국 판매량 규모는 텔물라이드가 경쟁 업체 대비 상대적인 열위에 있어 보이나, 기아는 수출 물량 및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2026년 신형 텔물라이드 판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중 Toyota Highlander 및 Grand Highlander를 제외한 경쟁 업체는 HEV PT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Honda는 Pilot HEV를 빨라도 2027년에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고, 기타 업체의 경우 HEV 출시 자체가 힘들 것이다. 이와 반면 기아 텔물라이드는 당장 2026년부터 HEV PT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곧 동사 HEV, SUV 믹스 개선에 따른 ASP 상승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림9. 미국 주요 미드 사이즈 SUV 차종 판매대수 및 MS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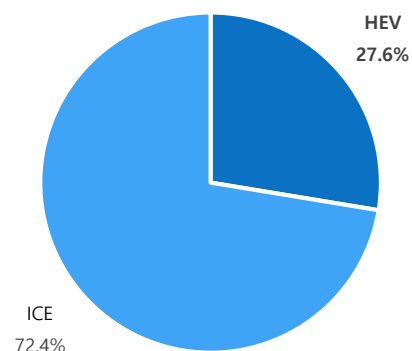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2024년 Toyota Grand Highlander 미국 판매 차종 분석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1. 2024년 Toyota Highlander 미국 판매 차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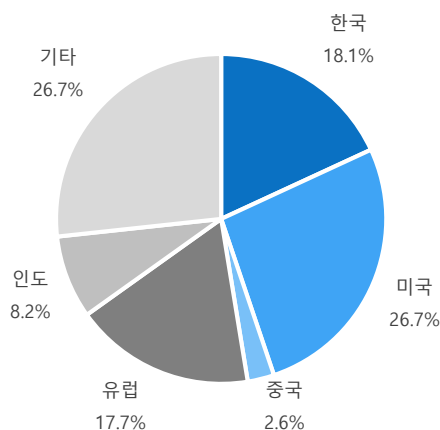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2): 결국 BEV가 중요한 유럽을 EV 플라인업으로 공략

투자포인트 (2)-1: 경쟁사 대비 높은 유럽 매출 비중, BEV 중심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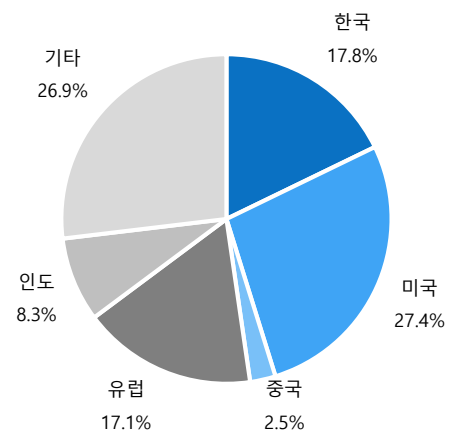
두 번째 투자포인트는 유럽 BEV 수요를 신차 사이클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다. 2024년 기준 기아의 유럽 소매 판매 비중은 17.7%, 2025년 10월 누적 기준으로 살펴봐도 17.1% 등에 달한다. 현대차의 경우 유럽 매출 비중이 10%를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유럽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은 동사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 2025년 10월 누적 기준 기아 유럽 소매 판매량은 43.7만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고, 이는 중국 OEM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다만 2H25부터 역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기아 친환경차의 성장세에 기인한다. 기아의 친환경차 구성은 HEV 43%, PHEV 12% BEV 45%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 성장세는 BEV가 주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12. 2024년 기준 기아 지역별 소매 판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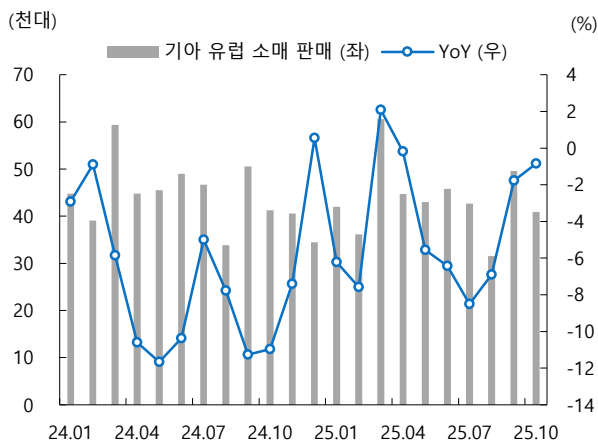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2025년 10월 누적 기준 기아 지역별 소매 판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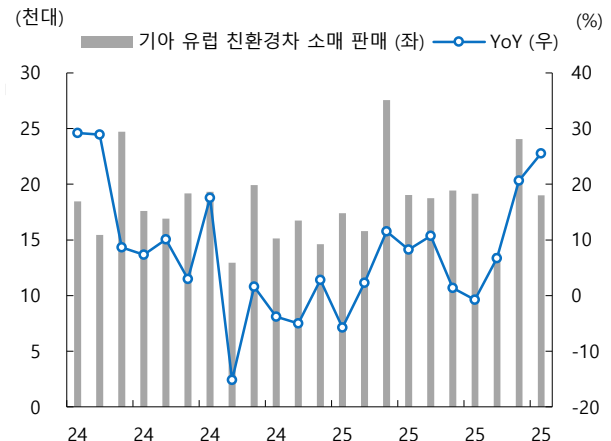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기아 유럽 소매 판매 및 YoY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기아 유럽 친환경차 소매 판매 및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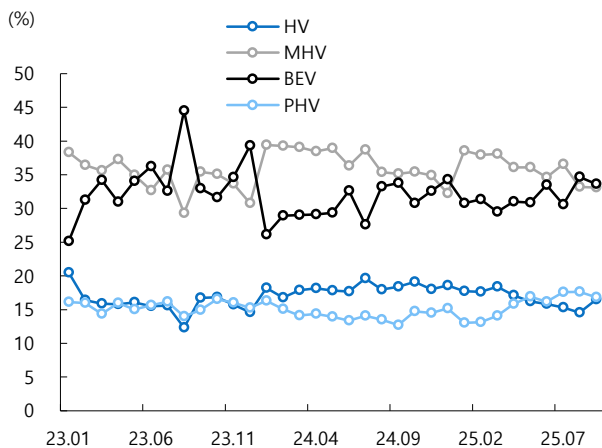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2)-2: 2026년 EV2 출시를 통해 완성될 EV 풀라인업

2024년 기준 주요 유럽 친환경차 시장은 BEV 30%, MHV 35%, HV 15%, PHEV 15% 등으로 구성되나, 최근 BEV 수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전기차 수요는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BYD 등 주요 업체들은 현지 생산 물량 확대를 통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MHV의 경우 동사 하이브리드 전략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BEV 수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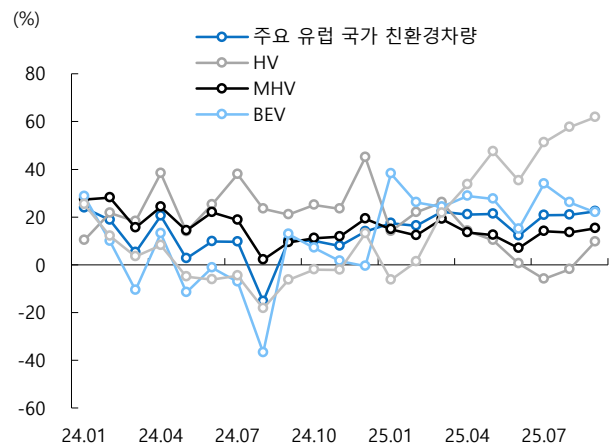
현재 기아가 유럽 권역에서 판매중인 EV 차량은 Soul, NIRO, EV3, EV4, EV6, EV9 등이 대표적이다. 2026년 기아는 EV2를 출시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 세그먼트에 걸친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할 전망이다. 이 중 볼륨모델로 구분되는 EV2, EV4의 성장성이 특히 중요할 것이고, 기아는 2027년까지 EV2 10만대, EV4 8만대 현지 생산 체제 (슬로바키아 공장)를 갖출 계획이다. 기아 유럽 인센티브는 경쟁 심화에 따라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와 같은 EV에 더해 ICE, HEV 신차 출시 또한 예정되어 있어 이를 통한 동사 인센티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그림16. 주요 서유럽 국가 친환경차 PT별 판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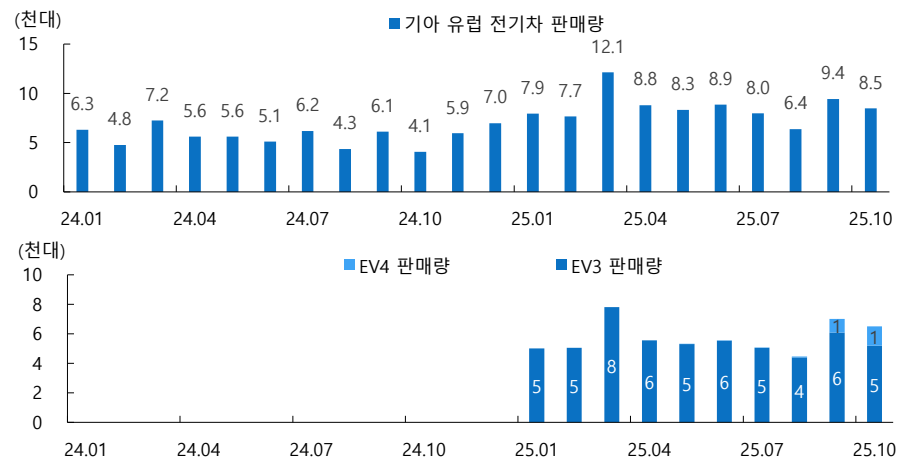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7. 주요 서유럽 국가 PT별 판매 대수 YoY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최근 기아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는 신차 출시 효과에 기인하고, 2026년도 이와 유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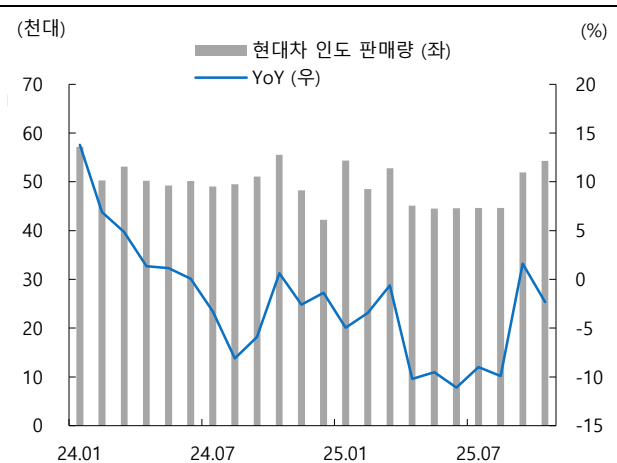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3): GST 인하 효과가 벌써부터 관찰되고 있는 중

투자포인트 (3)-1: GST 인하 후 업황 반등세가 관찰되고 있는 인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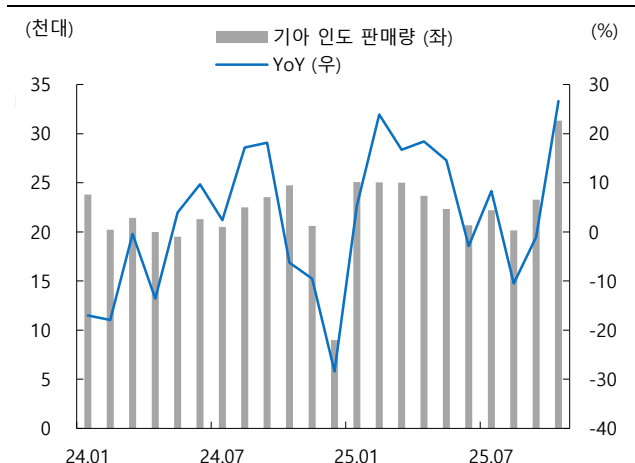
세 번째 투자포인트는 GST 인하효과가 벌써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일종의 부가가치세이며, 인도 내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GST는 일반적으로 28% 수준이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승용차 GST가 18%로 인하되었고, 연초부터 GST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GST 인하 후 차량 구매를 미뤘던 탓에 인도 자동차 업황은 썩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아는 2025년 10월 누적 기준 인도 판매량 22.4만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이는 Syros, Carens Clavis 등의 신차 출시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Sonet 등 기존 기아 인도 전략 차종의 판매 호조 또한 관찰되는 등 인도에서 GST 인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림19. 현대차 인도 월별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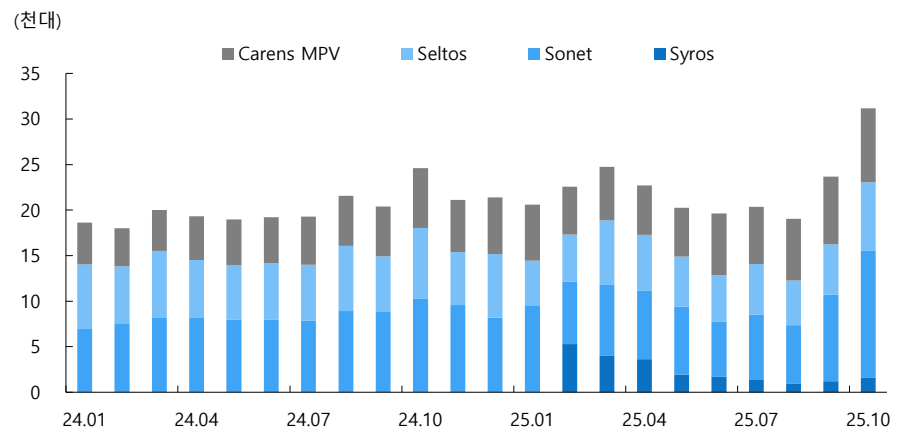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0. 기아 인도 월별 판매량 추이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1. 최근 기아 인도 판매 대수 증가는 신차 출시 효과에 기인하고, 2026년도 이와 유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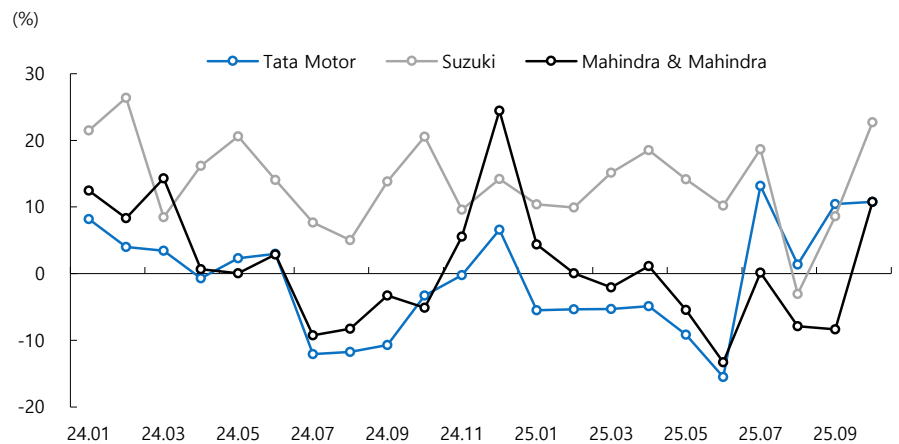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3)-2: Syros, Carens EV를 통한 초기 전기차 M/S 확보 나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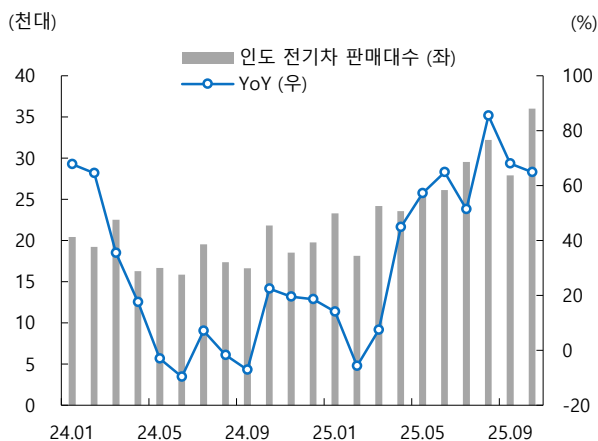
실제로 주요 인도 OEM들의 판매 실적 또한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증가세에 들어선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 등 이는 2026년이 본격적인 업황 반등의 해임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이다. 향후 기아가 인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 또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다. 현재 인도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2~3%에 불과하나, 인도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승용차: 30%, 상용차: 70%, 이륜 및 삼륜차: 80%, 버스: 40% 등의 세부 항목별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기아는 올해 7월 출시한 카렌스 EV를 기점으로 인도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출시가 예정된 전통적인 볼륨 모델 Syros의 EV 차량은 초기 인도 전기차 시장 M/S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에 대해 100%를 상회하는 수입 관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 설비가 있는 소수 업체간의 경쟁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 기아는 카렌스 EV를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이며, Syros의 EV 또한 현지 생산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림22. 인도 내 주요 OEM 월별 판매 YoY 추이: 추세적 반등 구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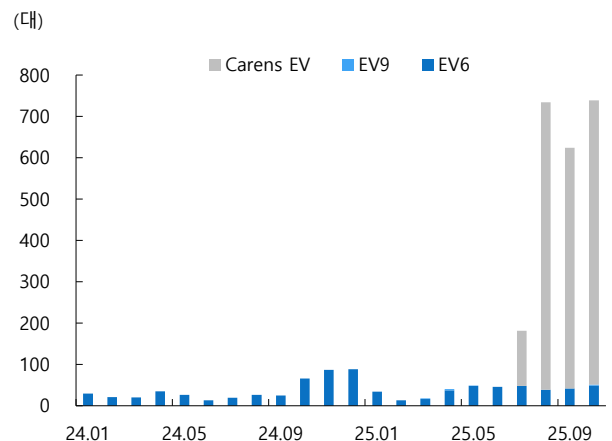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3. 인도 전기차 판매대수 및 YoY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4. 기아 인도 전기차 판매대수 추이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4): 기아의 색깔을 PBV로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투자포인트 (4)-1: PV5 판매를 시작했으며, 2030년 전체 판매량 5.6% 구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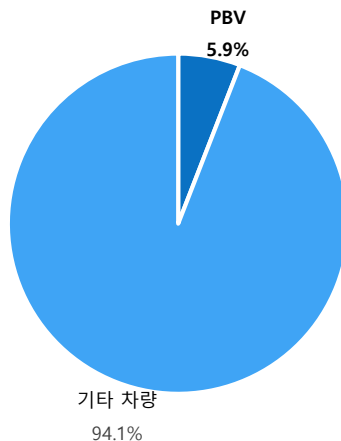
네 번째 투자포인트는 PBV를 통해 기아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기아는 2025년 8월 PV5 카고 룡, 패신저 모델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2026년부터 오픈베드, 카고 컴팩트 등 PV5 파생 모델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PV7, PV9 상위 트림 차량 또한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기아는 PBV 판매 가이드를 2026년 5만대, 2028년 22만대, 2030년 25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기아 전체 도매 판매 중 5.9%가 PBV로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기아가 발표한 PBV 지역별 판매 가이드 중 유럽 판매 비중이 약 53%를 구성하는 등 향후 글로벌 판매에 따른 믹스 개선에 대한 기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PBV 차량은 화성에 위치한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에서 생산될 것이며, 현재 디자인 캐파는 약 35만대 수준이다.

그림25. 기아의 PBV 라인업: PV5, PV7, PV9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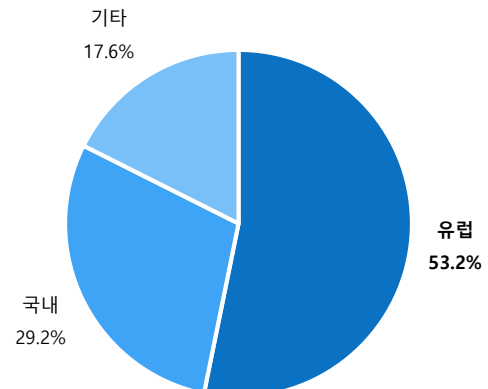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6. 기아 2030년 도매 판매 가이드 대비 PBV 판매량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7. 기아 2030 지역별 PBV 판매 가이드 비중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투자포인트 (4)-2: 봉고 신화를 재현할 PBV의 Flexible Body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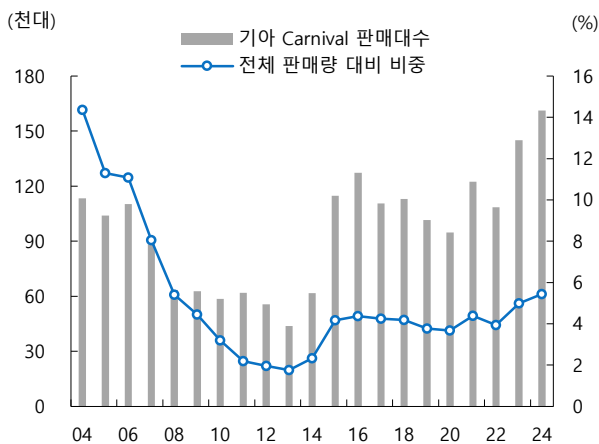
기아의 PBV 차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바로 Flexible Body System이다. 이는 차시를 포함한 기본 바디 이외 도어, 외장 등을 모듈화 해 다양한 차량 사양을 보다 수월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기아 PV5의 경우 세부 차종이 모두 전면부와 후면부 1열 구조를 공유하고, 다양한 후면부를 모듈화해 총 16개 차종까지 확대 가능한 플랫폼이다. 기아는 오랜 기간 봉고를 통해 이와 같은 가변식 플랫폼과 관련한 경쟁력을 쌓아왔다. 과거 봉고에서 관찰되었던 플랫폼 공유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따른 높은 대당 이익 또한 기대된다. 단순한 상용차량이 아니라, 미니밴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재 판매중인 PV5만 보더라도, 프리미엄 미니밴부터 냉동탑차에 이르는 차종을 제공한다. 출시가 예정된 PV7, PV9가 추가된다면 그 범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PBV는 현재 기아가 판매중인 카니발, 봉고를 아우르는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아만의 색깔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28. 기아 PBV의 Flexible Body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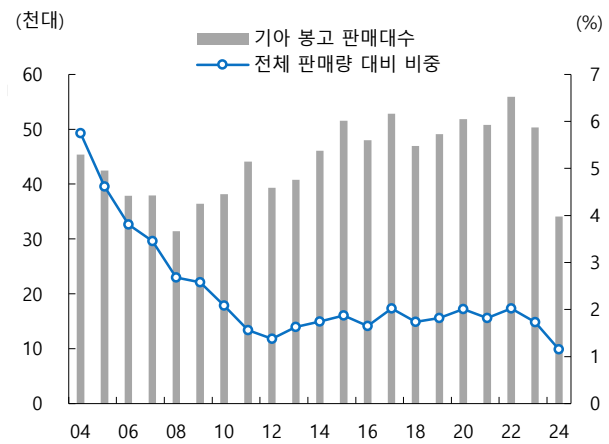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기아 Carnival 판매대수 및 전체 판매량 대비 비중: PBV를 통한 다목적 차량 판매 확대에 나설 것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0. 기아 Bongo 판매대수 및 전체 판매량 대비 비중: PBV를 통한 상용 차량 판매 확대에 나설 것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2026년 실적 전망 및 Valuation

당사는 기아 2026년 매출액 119.6조원 (+4.0%YoY) 영업이익 9.7조원 (12.6% YoY)을 전망하며 근거는 아래와 같다. 매출액의 경우 (1) 텔룰라이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2) 인도 GST 인하 효과가 일찍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영업이익의 경우 (1) 자동차 관세 15% 확정에 따른 연간 관세 부담액 축소, (2) 크레딧 정책에 따른 관세 환입 가능성 등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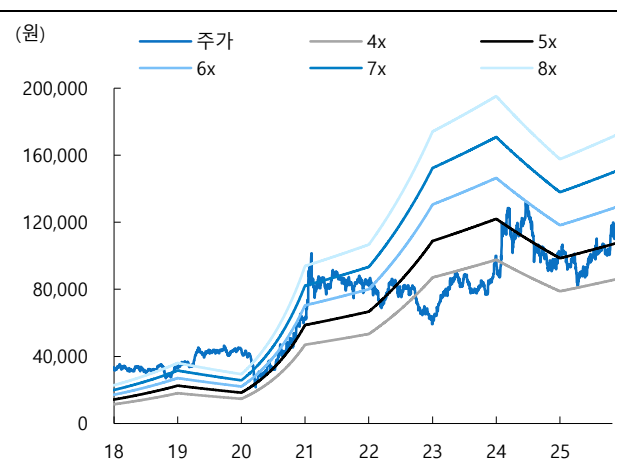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50,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35.0%이다. 2026년 EPS 20,164원, 글로벌 Peer 완성차 업체 12M Fwd P/E에 10%에 할증을 부여한 P/E 7.5배를 Target Multiple로 설정했다. 이는 1) 하이브리드 신차 출시 및 기술 경쟁력에 따른 북미 M/S 증가, 2) 스마트카 자체 개발 가능성 남아있는 유일한 레거시 완성차 OEM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31. 기아 Valuation Table

(단위: 원, 배, %)		비고
(A) EPS	20,164	12M Fwd EPS
(B) Target Multiple	7.5	글로벌 피어 평균 Fwd P/E 10% 할증
적정주가	151,230	(A)*(B)
목표주가	150,000	
현재주가	111,100	2025-11-24 종가 기준
상승여력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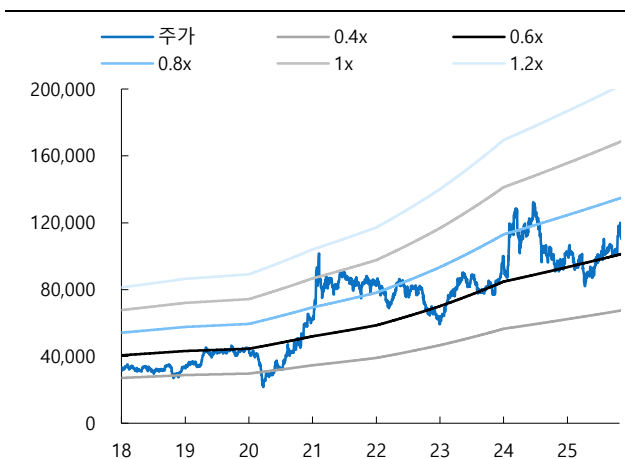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2. 기아 12개월 선행 P/E Chart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3. 기아 12개월 선행 P/B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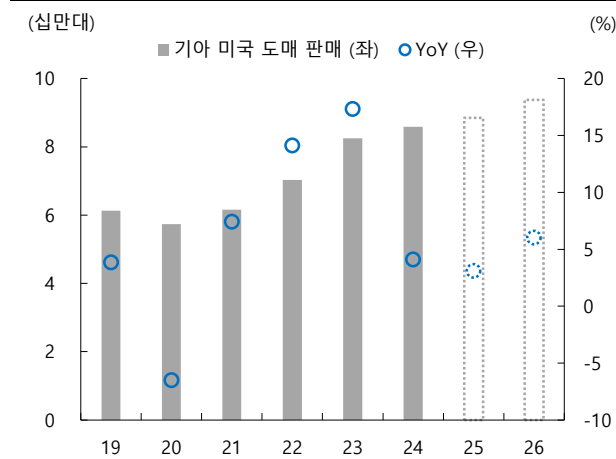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4. 기아 분기 및 연간 실적 테이블

(억원, %)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F	2024	2025F	2026F
매출액	262,130	275,679	265,199	271,479	280,175	293,496	286,860	289,470	1,074,487	1,150,001	1,196,125
YoY	10.6	5.0	3.8	11.6	6.9	6.5	8.2	6.6	24.1	7.0	4.0
매출총이익	62,360	66,459	61,397	57,492	60,807	58,754	54,090	54,999	247,708	228,650	271,899
YoY	16.1	9.6	4.8	7.8	-2.5	-11.6	-11.9	-4.3	37.4	-7.7	18.9
GPM	23.8	24.1	23.2	21.2	21.7	20.0	18.9	19.0	23.1	19.9	22.7
영업이익	34,257	36,437	28,813	27,164	30,085	27,647	14,620	14,473	126,671	86,825	97,761
YoY	19.2	7.1	0.6	10.2	-12.2	-24.1	-49.3	-46.7	75.1	-31.5	12.6
OPM	13.1	13.2	10.9	10.0	10.7	9.4	5.1	5.0	11.8	7.6	8.2
세전이익	37,845	40,400	32,319	24,399	32,434	30,001	18,870	17,366	134,963	98,671	111,371
지배주주순이익	28,091	29,566	22,679	17,393	23,926	22,682	14,220	12,504	97,729	73,332	80,187
YoY	32.5	5.0	2.1	7.4	-14.8	-23.3	-37.3	-28.1	80.7	-25.0	9.3
NPM	10.7	10.7	8.6	6.4	8.5	7.7	5.0	4.3	9.1	6.4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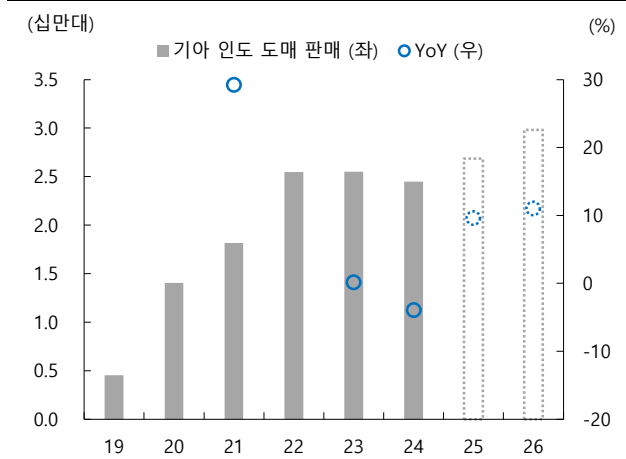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5. 기아 미국 연간 도매 판매 추이 및 전망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추정

그림36. 기아 연간 인도 도매 판매 추이 및 전망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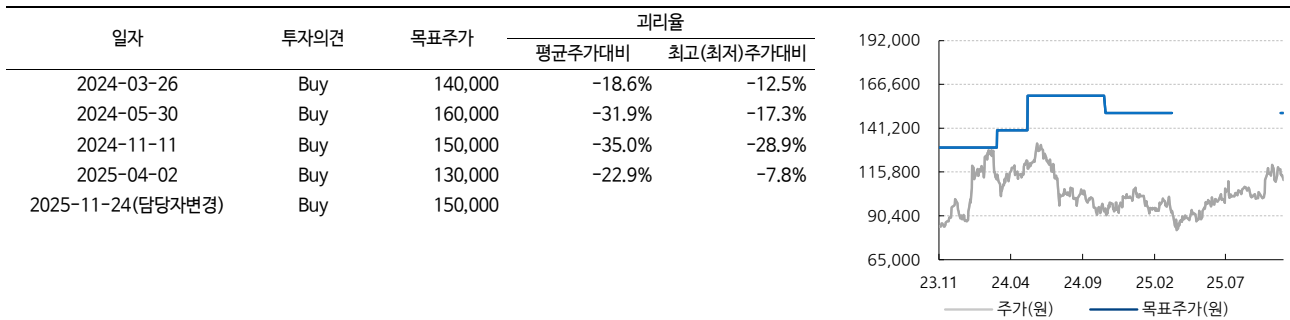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4	2025E	2026E	2027E	(십억원, %)	2024	2025E	2026E	2027E
유동자산	41,797	44,397	47,898	50,988	매출액	107,449	115,000	119,613	125,658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567	13,279	15,434	16,889	증가율(%)	7.7	7.0	4.0	5.1
단기금융자산	8,495	9,344	9,812	10,302	매출원가	82,678	92,135	92,423	97,094
매출채권	7,114	7,747	8,046	8,439	매출충이익	24,771	22,865	27,190	28,564
재고자산	12,419	13,800	14,354	15,079	판매비와관리비	12,104	14,182	17,414	17,970
비유동자산	50,958	53,476	56,188	60,232	연구개발비	1,718	1,786	1,858	1,951
유형자산	18,279	18,910	19,642	21,608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4,094	4,236	4,384	4,537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92,756	97,873	104,086	111,220	영업이익	12,667	8,683	9,776	10,594
유동부채	26,977	26,001	25,334	24,897	증가율(%)	9.1	-31.5	12.6	8.4
매입채무	10,455	10,925	11,363	11,938	영업이익률(%)	11.8	7.6	8.2	8.4
단기차입금	221	210	199	189	이자수익	1,020	1,046	1,167	1,257
유동성장기부채	838	599	599	599	이자비용	101	82	72	64
비유동부채	9,938	9,222	8,606	8,074	지분법이익(손실)	395	415	436	458
사채	2,176	1,740	1,392	1,114	기타영업외손익	-304	-170	-109	-109
장기차입금	-	-	-	-	세전계속사업이익	13,500	9,867	11,137	11,981
부채총계	36,916	35,222	33,940	32,971	법인세비용	3,725	2,763	3,118	3,355
지배주주지분	55,831	62,641	70,137	78,240	세전계속이익률(%)	12.6	8.6	9.3	9.5
자본금	2,139	2,139	2,139	2,139	당기순이익	9,775	7,333	8,019	8,626
자본잉여금	1,760	1,760	1,760	1,760	순이익률(%)	9.1	6.4	6.7	6.9
이익잉여금	50,241	55,015	60,475	66,542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9,773	7,333	8,019	8,626
기타자본항목	1,691	3,727	5,763	7,799	기타포괄이익	2,036	2,036	2,036	2,036
비지배주주지분	9	9	9	9	총포괄이익	11,811	9,369	10,055	10,662
자본총계	55,840	62,650	70,146	78,249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	-	-	-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십억원)	2024	2025E	2026E	2027E		2024	2025E	2026E	2027E
영업활동 현금흐름	12,564	9,925	12,242	13,021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9,775	7,333	8,019	8,626	EPS	24,413	18,440	20,164	21,69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010	2,239	2,603	2,774	BPS	140,395	157,520	176,369	196,745
무형자산상각비	540	669	692	716	CFPS	30,782	25,752	28,449	30,469
지분법관련손실(이익)	395	415	436	458	DPS	6,500	6,500	6,500	6,500
투자활동 현금흐름	-10,153	-5,520	-5,720	-7,270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3,424	-2,869	-3,335	-4,740	PER	4.1	6.4	5.8	5.4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1,192	-811	-840	-869	PBR	0.7	0.7	0.7	0.6
금융상품의 증감	-4,949	-1,744	-1,833	-1,925	PCR	3.3	4.6	4.1	3.9
재무활동 현금흐름	-3,570	-3,197	-2,871	-2,801	EV/EBITDA	1.4	2.3	1.8	1.5
단기금융부채의증감	-	-250	-10	-10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923	-435	-348	-278	ROE	19.1	12.4	12.1	11.6
자본의증감	-	-	-	-	EBITDA이익률	14.2	10.1	10.9	11.2
배당금지급	-2,194	-2,559	-2,559	-2,559	부채비율	66.1	56.2	48.4	4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787	-288	2,155	1,455	순부채비율	-33.7	-32.0	-32.9	-32.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4,353	13,567	13,279	15,434	매출채권회전율(x)	17.5	15.5	15.1	15.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3,567	13,279	15,434	16,889	재고자산회전율(x)	9.1	8.8	8.5	8.5

자료 : 기사, iM증권 리서치본부

기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5-09-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91%	8.3%	0.7%